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또 다른 세계를 선물하는 독서 교육

의도를 가장 넓게 이해하기 위해 '독서'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점차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의 시대에 서 더불어 살아가는 '휴머니즘'을 키우기 위해서 남과 나의 차이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독서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의 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청소년의 종합 독서율은 95.6% 연간 독서량 36.0권으로 2021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 93.1%, 전자책 51.9%로 매체에 걸쳐 골고루 증가했다. 디지털 환경 속, 책을 보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독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아이들은 기술의 발전을 누리며 인문학적 감수성과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키며 사회를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독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서 교육을 위해 우리는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내놓을 수 없다. 독서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성인층에서도 전자책 독서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독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큐레이션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다양한 책들을 학생별로 선별해 추천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 즉, 교사 개개인이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서한 책들의 역사적·문화적 배

경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인문학적 해석을 제공하는 등 학생 개별적으로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독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꾸준히 자신의 독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독서 토론한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독서 모임 참여 소감도 디지털 독서 플랫폼에 작성할 수 있다. 원한다면 자신의 독서 기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다른 기록들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토론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클럽을 운영할 수도 있고 AI와 토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맞춤형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독서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개인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무거운 무게를 들고 힘든 동작을 하며 몸의 근육을 키우듯, 힘들어도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하며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비록 힘들고 땀이 나지만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는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인들의 세계를 전심전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야말로 인류를 발전시켰던 독서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매체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활자, 그림,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VR)마저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문제부의 2023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우리는 독서 대신 영상을 보고, 그 영상마저도 짧은 쇼츠를 선호한다.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 정보를 주려는 흐름 앞에서, 책과 독서는 긴 시간 동안 고요를 친구삼아 오르기 힘든 산을 땀 흘리며 걸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모두 차단한 채 그것들이 주었던 유용한 생각들과 번역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글을 쓴다면 어떨까? 아마 금방이라도 해낼 것 같겠지만, 그 생각의 조각들을 짜맞추는 하나의 완성된 '세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독서는 즉각적인 흥미를 주는 다른 매체와 달리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중 가장 어렵고 불편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불편한 방식인 독서를 계속해야 하는가? 자동차가 보편화된 우리의 삶이지만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듯, AI가 보편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부러 상대의

기고



남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

결핵 퇴치, '잠복결핵' 관리부터 시작해야

자가 스스로 초기에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아·저체중·암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흡연·음주·영양결핍·의료기관 중사자처럼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잠복된 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된다.

잠복결핵에 감염되면 결핵에 준해 치료하게 되는데, 나이, 간질환 상태, 기저질환 등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치료하게 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중단없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생 결핵 예방이 가능하다.

잠복결핵 미치료자는 치료 완료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이 5.7배나 높다. 2021년 질병관리청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약 83%까지 결핵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잠복결핵 치료의 효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중 5%는 첫 2년 이내,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 2세 미만 소아의 경우 잠복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에 걸릴 확률이 성인보다 4배나 높다.

첫 2년 이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잠복결핵 감염 후 결핵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최소 2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흉부 엑스선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아 소아 등의 대상자는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이들이 속해있는 기관의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에 의무화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산후조리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검진 대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고 잠복결핵은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잠복결핵은 소아와 노인에게 더 큰 위험을 갖고 있다. 적절한 예방 및 조기 진단을 통해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정책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치료를 강화하고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세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핵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결핵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도민들의 참여다.

잠복결핵 의무 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기를 권한다. 잠복결핵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 치료비와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관리까지 산정특례(건강보험제정)를 적용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내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 43개소 중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보건소에서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가래,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결핵 검진을 받기를 당부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를 괴롭히는 환경이라 주변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처럼 도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감염병 중 기침,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지닌 감염병이 또 있다. 바로 오로라 전부터 우리를 괴롭혀 온 결핵이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결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2위로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전남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이 50.4명, 사망률이 4.7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결핵은 기침할 때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대부분 건강한 성인은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몸 속에 잠복해 있는 '잠복결핵'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복결핵은 다른 감염병의 잠복기와 마찬가지로 증상도 없고 흉부 엑스선 검사도 정상이며 기침·재채기 등을 하더라도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

"4계절 중 봄철 산발 가장 많다"…주의해야

은 바로 봄이다. 산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산할 경우는 라이터·버너 등 화기 물질의 휴대를 일일 금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행위나 불 피우는 것을 반드시 금해야 한다. 또 발 뒤꿈치·눈두덩을 태우거나 쓰레기 조각 시에는 소방서 등에 사전 신고를 하고 불길이나 산림에 옮겨 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

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산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3년이 걸리며, 자연적인 생태계 회복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다. 오랜 기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봄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독자투고

우리나라는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3·4월을 전후로 쉽게 화재가 발생한다. 이 시기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불티만으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 산발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시간은 습도가 낮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한다. 세계적 중 산발에 가장 주의해야 할 계절

社說

콘텐츠 확충 부진 전남 공공배달앱 위기를 기회로

전남지역 공공배달앱이 출시 2년만에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회원수가 늘었으나 매출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무료배달을 앞세워 콘텐츠 확충에 부진한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더 밀리는 형세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민·관 협력형 '먹깨비'는 2022년 7월 출시 이후 현재 누적 가맹점 9천851개소, 주문 70만4천409건, 매출액 173억5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목표 매출 100억원도 8월에 돌파했고 가맹점 목표(7천개소)도 2천곳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 강진·진도군에서는 가맹점 수가 민간배달앱을 추월, 대성공을 이뤘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주문건수와 매출액은 각각 3만6천719건, 9억1천만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7%, 14.9% 감소했다.

달 말 기준 누적 주문은 225건, 매출은 42만6천700원에 그쳤다.

먹깨비는 민간업체(주먹깨비)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홍보 마케팅을 담당한다. 민간배달앱(최대 15%) 대비 낮은 증가수수료(1.5%)는 물론, 가입비·광고료도 없다. 지역화폐 결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익 창출과 소비자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원인'이다. 전남도는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홍보를 위해 지난해에만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전체 매출의 10% 수준에 달한다.

반쪽 승승장구하다가 초라한 실적을 마주하고 있다. 점유율 공세에 나선 민간배달앱에서 원인을 찾아선 안 된다. 자체 경쟁력에서 뒤떨어진 결과로 생존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대로라면 실지리를 잃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전남 인구 중 5.5%가 먹깨비 회원이며, 청년·중장년층 이용 비중이 높다.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실질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회원 수가 6만2천118명에서 9만9천933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매출은 내리막길이다. 농수산물물류 취급하는 로컬상품 서비스도 출시 8개월이 흘렀지만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과 호남 당선자들 초심 잃지말라

4·10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전남 의과대학 설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생발전의 책무에 충실해 달라는 요구에 부합할지 기대가 크다.

상은 잃지 않는다. 개인적인 희망, 욕심이 있더라도 역할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강 시장의 당부처럼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MBC, KBC, 광주CBS, 뉴스광주·전남, 남도일보, 전남매일 등 7개 언론사 공동 주최, 광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축하인사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 시·도·기초의회 의장단, 기관장, 광주상의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다. 당선자들은 당면한 숙제를 초기에 국정에 반영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낙후된 광주·전남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뉘했다. 이에 '원인'이 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호남 정치의 위상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시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다. 거대야당의 지위에서 독주, 오만을 경계하는 것이다.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전남 지역구 18석 전부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이 잘해서일까,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특히 초선이 대다수인 광주의 경우가 이를 반증한다. 대규모 물갈이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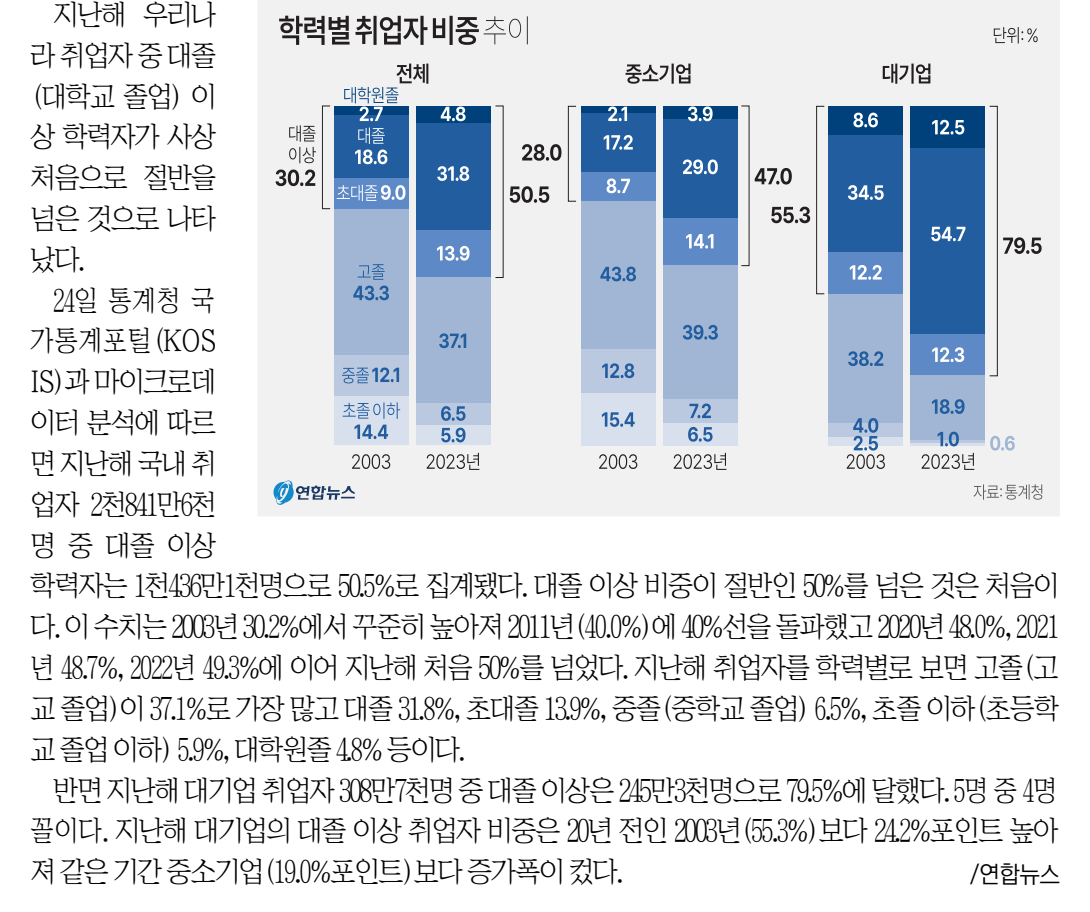
치력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발현해야 한다. 호남의 고품과 소외를 탈피하는 게 지상과제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의 책임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 당선자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겠다.

당선자의 시간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부터 빠짐없이 골고루 안배돼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 한 명씩 배정되는 게 이상적이다. 솔림 현

그래픽 뉴스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절반 처음 넘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650-2099 |
| 정치부 650-2030 | 사 진 부 650-2080 | 마케팅본부 650-2070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 설 실 650-2006 | 경영지원국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 V 본 부 650-2009 | 사업본부 650-2007 | 입부국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업 무 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